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1885-2025

“희망, 도약, 동행”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 된 감리교회

제 47 회

평신도주일

2025. 6.1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평신도

기도 주간

5.26(월)-31(토)

5.26 월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5.27 화	믿음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가정
5.28 수	소명을 이루는 일터
5.29 목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
5.30 금	창조 은총을 회복하는 자연
5.31 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1885-2025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제 47 회

평신도주일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발행일
2025년 4월 24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3번길 135-52
T. 02)399-4346~9 F. 02)399-4350
kmc.or.kr

발행인
김정석

편집인
문영배

교정/교열
조은희 · 김주선

디자인
동영디자인예

비매품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I. 평신도주일 인사말 / 김정석 감독회장 4

II. 평신도주일 발간사 / 문영배 총무 6

III. 설교자료 8
1) 열정과 기적 / 유병용 감독
2) 교회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평신도 / 장호성 장로
3)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 권오진 목사

IV. 기도문 / 조은하 교수 26
–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 34
– 평신도주일 성수방법
–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VI. 평신도주일 성수 사례 | 동두천교회 37

VII. 첨부자료 | 결과보고서 42

VIII.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44

IX. 부록 | 한국감리교 선교의 개척자들(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자료제공) 50

인 사 말

새로운 감리교회를 향한 평신도의 역할

기독교대한감리회
김 정 석 감독회장

1979년 제정한 이래 올해로 제47회를 맞는 평신도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믿음생활을 이어가시는 모든 감리교회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신도회와 그 안의 여러 모임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며 감리교 운동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성장하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목회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연합신도회United Society, 속회Class Meeting, 밴드Band, 선별신도회Selected Society, 참회자반Penitents과 같은 소그룹에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한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육, 인도, 위로, 회복, 교제와 같은 목회적 돌봄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평신도 설교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은 순회설교자로서 초기 감리교 운동의 부흥과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감리교회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합니다.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가 2023년 3월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매우+약간)이 21.0%로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3년 전의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0.8%p 낮아진 결과라고 합니다. 이미 바닥권을 형성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더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임을 감안하면 코로나 사태를 겪은 3년 사이에 신뢰도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개체교회 중심의 사고와 활동에서 벗어나 서로 연합하여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의 역할'(마 5:13)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정치에 개입하거나 사회개혁을 외친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운 체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을 뿐입니다.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영국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감리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리교인Methodist, 메도디스트은 개인구원과 사회성화를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영적 운동에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 유산을 이어받아 지나온 140년의 역사에서 영적 부흥과 사회적 성화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은 일제강점기를 버티며 신앙으로 민족계몽운동을 이끌었고,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등 민족의 수난기에는 '십자가 신앙'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전답田畓과 결혼예물을 처분해 예배당 건축에 헌납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에 헌신하여 교회성장의 주축으로 활동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된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가르침에 따르면 평신도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하며,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요구했던 경건 생활과 직무의 수준은 성직자와 다를 바 없을만큼 엄격했습니다. 매일 새벽 한 시간 동안 묵상과 개인기도, 성경읽기 등을 했습니다. 또 매일 아침저녁으로 설교하고 매주 신도회와 반회로 모였으며, 매주 모임의 인도자들을 지도했습니다.

제47회 평신도주일을 통해 시대를 이끌었던 감리교회 평신도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믿음의 결심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감리교회'를 향한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평신도 여러분입니다.

마흔일곱번째 평신도주일을 맞이하며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 영 배 장로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며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평신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47회 평신도주일을 앞두고 평신도들의 사명과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140년 전의 이 땅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권다툼 속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민생은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격동의 근대사를 관통하며 정작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전쟁에 이어 주권을 뺏기기까지 나라는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고 위정자들은 착취와 억압을 통해 그들만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박했던 삶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힘없고 소외된 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공에 떠도는 말뿐인 복음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하는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실천한 복음, 무질서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빛이고자 소금이고자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향기를 전한 그 믿음의 모습을 현시대의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며 기도도 찬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외면하고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야만 할 때입니다.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평신도들이 사회에 희망의 빛을 쏘아올려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겠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평신도로서의 복음의 사역을 죽을 힘을 다해 감당하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 교회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 낮고 낮은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올봄,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국토가 시꺼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지경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아픔을 겪은 이웃을 찾아갑시다. 진정으로 위로의 손길을 내밉시다. 그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엡 4:4)

제47회 평신도주일 자료집을 발간하며, 한국교회가 개신교 한국선교140주년을 맞이하여 희망을 품고 부흥의 도약 기회로 삼아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평신도의 역할이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정과 기적

서울남연회 **유병용 감독**

누가복음 10:38-42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공 동기부여 전문가 팻 윌리암스는 [성공 프로젝트 마이클 조던 되기]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 '20세기를 빛낸 영웅', '농구의 황제'라고 칭하면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현란한 플레이, 농구 기술, 체력 같은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 있는 마이클 조던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 근성이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황제란 칭호를 얻게 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당신은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저는 시간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저는 농구 연습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구의 황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삶에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어떤 일에 대하여 갖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본문은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집에 들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소개할 때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그 열정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1. 마르다의 열정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실 때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누가복음 10: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합니다. 분주

하다는 말은 "몹시 바쁘며 뛰어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몹시 바쁜 모습의 결과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던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로 '섬김, 봉사, 직무'를 뜻합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헬라어 '페리에스파토'로 '끌어내다 흩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더 잘할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 곳을 신경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김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분주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가지는 좋은 느낌을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대상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좋아하는 마음은 'Take'라고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G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냐 상대를 위한 것이냐로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섬김은 열정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열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귀하고 값진 것으로 섬겨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헌신, 섬김, 봉사의 기본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열정입니다. 교회에서 음식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식사로 섬깁니다.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섬김의 열정입니다.

2. 마리아의 열정

동생 마리아의 모습은 마르다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열정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래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맨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통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더 듣고 싶고 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들 틈에서 내 아이의 목소리를 쉽게 식별해 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상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마음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열정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3. 예수님의 평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두 자매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속상해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누가복음 10:40)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10:41-42)고 하셨습니다. "네 동생도 좋은 것을 택했

고, 너도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 분주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섬기는 일도 좋은 일이고, 말씀을 듣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열정이 수반된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후에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기도와 치유의 능력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지체하시고 급히 오시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열정이 있었기에 실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대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열정을 가진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뜨거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열정으로 기도가, 마음이, 사랑이, 감사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평신도

영등포지방회 대림교회 **장호성 장로**

잠언 16:32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조엘 오스틴의 『잘되는 나』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삶 속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선순위 목록의 맨 꼭대기에 두어야 할 이 관계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로 우리와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질 수 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파고들어오는 갈등의 틈을 막아내야 한다. 개성도 기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방향이 다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충돌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알면서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려면 성숙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내심이 있어야 쉽게 흥분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가 말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은 인간이 화내는 존재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화가 잘못은 아니다.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반사적, 충동적으로 반응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하여 지혜롭게 건설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나는 상황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답답한 일도 겪고, 짜증나는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을 지혜롭게 잘 참으면 좋게 끝날 일인데,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견디면,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지게 된다.

잠언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여러 군데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잠언 12:16)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잠언 14:29)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잠언 15:18)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잠언 29:22)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야고보서 1:19)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송년회 할 때 교역자 부부, 원로 및 시무장로 부부,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인사 말씀도 하는데 내가 선임장로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되었다. 올해 장로 은퇴를 앞두고 지난해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주셨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조금 망설였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다.

에베소서에도 화났을 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에베소서 4:26-27)

성경은 원수에게 어떤 발판도 내주지 말라고 말한다. 갈등의 발판, 말다툼의 발판, 원망의 발판 등 그 어떤 발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2.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 16:32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그것은 잘 가꾸지 아니하면 온갖 잡풀과 잡목들이 자란다. 그냥 내버려 두면 엉겅퀴와 가시가 우거진다. 가시가 달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나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내버려둔 밭과 땅은 기름지고 잘 경작된 좋은 땅과는 달리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친 땅이 되고 만다.

인간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 우거진 황무지와 같다. 알곡의 씨앗들을 뿌리고 거기에 좋은 묘목을 심어보아도 소용없다. 이는 그 밭에서 자라난 가시에 기운이 막혀 잘 자라나 결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예레미야 17:9)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마음이 깊이 부패되어 있고 진실되지 못한 악한 본성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마귀로부터,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 자신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리석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릇된 생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도 잘 다스려야 한다. 미움, 분노, 시기심, 세상적인 욕망들도 그냥 놔두지 말고 잘 다스려 절제해야 한다.

잠언서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언 25:28)고 말씀하신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함은 결국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외부의 공격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할 성읍이나 성벽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로 기경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숙하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점점 변화해 갈 것이다.

3. 교회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

감리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이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에베소서 4:4) 말씀이 사회평신도국의 주제 성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신도가 한 소망을 갖고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사명이며, 이를 위해 각자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덕목이다.

평신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고 또 참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성도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평신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아현중앙교회 **권오진 목사**

로마서 12장 1-2절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드릴 헌, 몸 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헌신을 말씀하시는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헌신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①헌신의 이유(왜 헌신해야 하는가) ②헌신의 내용(헌신이란 무엇인가) ③헌신의 영역(어디에서 헌신하는가)입니다.

1. 헌신의 이유 : 왜 헌신해야 하는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헌신의 이유, 헌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 로마서 1-8장은 우리는 다 죄인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한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2) 로마서 9-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누구나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며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3)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16장은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입었으니 너희들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하다보면 '아, 이 분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영접기도 할 때부터, '하나님,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 혹은 동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서 헌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일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대기업 CEO를 찾아가 당신에게 내가 헌신하겠노라 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부족한 것 없으신 하나님은 왜 나의 헌신을 기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2. 헌신의 내용 :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완전하신 뜻이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선한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게 됩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다보면 우리는 '아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

다.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 뜻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는 마음의 소원도 주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 헌신의 영역 : 어디에서 헌신하는가

헌신의 영역,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일 것입니다.

1) 교회에서의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랜드 피아노를 제단 위에 놓을지, 제단 밑에 놓을지를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야외예배 때 바비큐를 할지, 김밥을 싸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서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지 못할 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언제나 분별하며 그 뜻을 받들 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2) 가정에서의 헌신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사역지로 파송된 사역자들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이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바로 이 동역자 의식에서 부부간의 존경심과 사랑과 배려가 가능케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파송된 사역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와 전공을 택할 때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조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돕게 됩니다.

3) 일터에서의 헌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역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업, 내 직장, 내 사업은 언제든지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비즈니스하면 가격 가지고 다른 가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속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있기에 고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비즈

니스라고 해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돈이 목적이 되면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기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섬김을 일터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사업은 세상에 감동을 주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직장사역자 방선기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 목사님에게 직장생활하는 친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분이 어느날 입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주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동생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십일조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비신자들도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입양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할 것 없이 한 입으로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선한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과 사역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직장도 헌신과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복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헌신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의 사역자가 되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헌신과 분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평신도주일의 기도

목원대학교 신학과 **조은하 교수**

평신도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성도가 자신이 서 있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존재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교적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세우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평신도주일에 드리는 기도는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믿음의 사명 앞에 다시 서려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파송과 헌신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2025년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40년의 선교 역사는 복음을 전한 자와 받은 자가 함께 이루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로 파송받는 자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증언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따라,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다시금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조용히 떨어진 누룩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5.26
월요일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1)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은총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주께 파송된 선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며,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위로를 나누고, 우리의 발이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드러나고, 정의와 자비, 진리와 화해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삶과 신앙이 나뉘지 않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로 세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2)

믿음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가정

5.27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첫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를 일상에서 익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 안에 경건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대를 잇는 믿음이 형성되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 사랑과 공존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책임지는 이웃 되게 하소서.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78:1-4)

5.28 수요일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3)

소명을 이루는 일터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각기 다른 일터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터가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명의 공간임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 섬김과 협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일터의 수고가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노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헌신이 되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평화를 이루고,
불의와 탐욕 앞에서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의 손으로 이루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이웃과 나누며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23-24)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4)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

5.29 목요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전쟁과 갈등, 질병과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저희는 그 아픔을 감당할
책임 있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흩어지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평화와 자비, 정의와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 앞에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2-23)

5.30
금요일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5)

창조 은총을 회복하는 자연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와 달, 숲과 바람, 물과 들풀, 작은 생명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의 돌봄을 맡은 청지기로 세우셨건만,
저희는 탐욕과 무관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을 파괴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돌보고 가꾸며 더불어 살아가는 은총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초록빛 은총을 찬양하며,
생명의 풍요로움이 지속되도록 힘쓰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평화의 숲이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19-21)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6)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

5.31
토요일

평화의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 샬롬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분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평화의 전령사로 부르시어,
맑은 영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정의와 생명을 보존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상이 아닌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말씀을 통해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샬롬이 개인과 공동체, 열방에까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아가며,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소서.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10-13)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제정되어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가. 목 적

평신도주일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 신앙실천운동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단체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다. 평신도주일을 잘 성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평신도가 되도록 한다.

나. 방 법

1) '평신도주일' 광고를 2주 전에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전 교인에게 홍보한다.
2)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26-31)은 자료집에 수록한 "기도문"의 '말씀과 기도'를 참고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킨다.
3)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평신도상'을 세운다.

다.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려진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① 90%는 지방 평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며,

② 10%는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및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에 사용한다.

라.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한다.

제출방법 ① 팩스 02-399-4350
② e-mail : sa-pyeong@daum.net
③ 우편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3번길 135-52 사회평신도국

문의 전화 02-399-4346, 4348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간	프로그램	방 법
개체 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26(월)~31(토)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하며,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1일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 ● 불우이웃돕기 물품전달식을 갖는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실천한다.
지방	전도 운동	● 지방내 교회가 합동 노방전도 때 거리청소를 병행한다.
	평신도상 수여	● 사회봉사상, 전도상, 효자효부상, 다자녀다복상 등을 선정하여 지방 연합행사시 시상한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미자립교회 개보수 재능기부사역을 실시한다.

크리스찬뉴스 유승훈 기자(2024.06.13.)

동두천교회에서 드려진 제46회 평신도주일 예배

조광남 장로,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크리스찬의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강조

동두천교회 평신도주일 예배 모습

'내일,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라'는 표어로 부흥을 향해 달려가며, 올해로 118주년을 맞이한 동두천교회(담임 이양로 목사)는 지난 6월 9일 1부와 2부 예배를 평신도주일로 지키며, 축도를 제외한 모든 순서를 평신도가 맡아 진행함으로 감리교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서 전하고 있는 평신도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실천하고 있다.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 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각 지방회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다.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

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쓰임 받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고,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 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 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다.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간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 신앙 실천 운동으로,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 단체 간의 유대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평신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발췌 및 참조/ 감리교 평신도주일 자료집 2024)

사회, 정우상 장로

설교, 조광남 장로

정우상 장로의 사회로 드려진 동두천교회의 평신도주일 2부 예배는 신진우 권사의 기도, 유경화 권사의 성경봉독(로마서 14:7~9) 후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찬양(내게 있는 모든 것이)에 이어 조광남 장로(동두천교회/장로회 전국연합회 혁신위원회 위원장)는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광남 장로는 "오늘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979년 3월 총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제46회 평신도주일인데 평신도주일에는 예배의 모든 순서자를 평신도가 담당하고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만 목사님이 담당한다"라고 평신도주일을 소개하면서

동두천교회 평신도 주일예배 모습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로마서 14:7)을 통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크리스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구적인 표현으로 먼저 언급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구조의 짝을 맞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를 말한 것으로 결국 크리스찬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만약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신앙도 자기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종교 수준의 믿음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순간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진짜 신앙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일치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로마서 14:8)’라고 말한 것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의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받은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쾌락이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를 위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봉헌 찬양, 제50회 전국 어린이 찬양대회 고학년 독창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박예준 어린이(동두천교회)

이후 교회학교 전국연합회(회장 서순종 장로) 주최 제50회 전국 어린이 찬양대회 고학년 독창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박예준 어린이(동두천교회/초5)의 봉헌찬양(예수 사랑하심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가운데 예물을 올려드린 후 박범옥 목사(동두천교회 부목사)의 축도로 동두천교회에서 드려진 제46회 평신도 주일예배를 모두 마쳤다.

한편, 오주학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경난 권사의 기도와 김지아 청년의 성경봉독(시편 50:22~23), 아멘 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이기영 장로는 ‘나는 왜 감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아멘 성가대 중창단의 봉헌찬양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드린 후 이현재 부목사의 축도로 평신도주일 1부 예배를 마쳤다.

축도, 박범옥 목사(동두천교회 부목사)

성경봉독, 유경화 권사

기도, 신진우 권사

봉헌 모습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찬양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영광의 찬양

제47회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I)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25년 제47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교회 현황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 고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 고
			합 계		

• 교회 수 _____교회 •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 수 _____교회

2. 교회별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구 분	교회명	비 고
낮 예배		
저녁(오후) 예배		
낮 예배+저녁(오후)예배		

_____연회 _____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_____ (인)

제47회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II) [지방 연합성회]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25년 제47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일 시 : 2025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2. 장 소 :

3. 참여교회 : 지방 교회 수 _____교회, 참여 교회 수 _____교회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4. 헌금총액 : _____원

5. 연합 행사 내용

6. 기 타

_____연회 _____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_____ (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취 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목 표

1.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2.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으로 사회생활 수칙을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3. 하나님의 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1. 교인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란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동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하게 한다.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④ 약속을 꼭 지킨다.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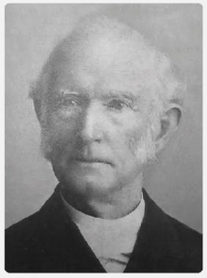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가우처 (John Franklin Goucher,1845.6.7.~1922.7.19)

한국 선교의 아버지 가우처는 미국 볼티모어 감리교회 담임목사였고 가우처대학의 설립자이며,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선교를 위해 25만불을 후원했다. 하나님의 조선 땅 구원의 역사는 미국에 온 조선의 개화파 보빙사절단을 미국 대륙횡단 열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와 만나(1883.11.22.)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보빙사절단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까지 하며 한국선교 가능성을 확인하고, 일본 주재 선교사 매클레이에게 한국에 가서 고종에게 선교 윤허를 받도록 지시했다. 그 후 정동 주변에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 이화학당, 시병원, 중앙교회,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대학을 세우도록 5,000불을 후원하고 한국을 6회나 방문하며 선교를 하였다.

- 미국 감리교회목사(볼티모어 연회)
- 1869 미국 디킨슨대학졸업
- 1891 볼티모어여자대학 총장
- 미 선교부 위원
- 아시아지역 선교기부



매클레이 (Robert Samuel Maclay, 1824.2.7.~1907.8.18)

1848년 미국 감리회 중국선교회 개척선교사가 되어 25년간 사역하고, 1874년 일본선교회 개척선교사로 파송받아 일본 선교부를 개설하여 15년간 사역하였다. 일본에서 한국선교를 위해 1884년 3월31일 한국선교회를 조직한 후 한국선교 지방 초대 감리사로 임명되어 일본주재원으로 있던 이수정, 김옥균과 교류하며 1884년 6월 24일 미국인 선교사 최초로 한국 땅에 와서 고종으로부터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1884년 7월 2일 받아냈다. 그 후 6년간 한국선교를 지도하며 정동 일대를 감리회 선교 근거지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선교하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놓은 한국 선교의 개척자이다.

- 미국 감리교회목사(볼티모어 연회)
- 1845 미국 디킨슨대학졸업
- 1889 메클레이(클레어몬트)신학교 학장

아펜젤러 (Henry Gerhart Appenzeller,1858.2.6.~1902.6.11)

1884년 미국 감리회 한국 초대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매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에게 선교 윤허를 받은지 1년 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서울 정동에 선교부를 개설한 후 배재학당과 삼문출판사를 설립하여 한국의 근대교육과 문화를 도입하였고 한글신문과 대한그리스도인회보를 창간하였다. 또한 기독교서회와 성서공회 창설을 주도하였고 서재필과 이승만의 독립협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1887년 벧엘예배당(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을 건축하였고 1889년 서울 중심지인 종로 인사동에 복음전도를 위한 책방으로 대동서시를 개설하였는데 그것이 오늘의 중앙교회로 발전했다. 1902년 성경번역을 위해 목포로 가던 중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건으로 배가 침몰되자 수영 못하는 여학생들을 구출하고 본인은 순직하였다.

- 미국 감리교회목사(볼티모어 연회)
- 1882 프랭클린 마샬대학졸업(드류신학교 졸업)
- 1884 한국 선교사 파송

조선 부국강병을 위해 펼친 고종의 인재양성 정책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 고종하사
인재를 양성하라 - 왕명

〈학당훈〉 욕위대자 (欲為大者) 당위인역 (當為人役)
"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마 20:26)"

최초의 서양식 여학교, 이화학당

" 우리는 이 여아들을 우리 외국사람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단지 조선인을 보다 나은 조선인으로 만들어 조선인이 조선적인 것에 긍지를 가지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조선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M. 스크랜튼 –

▶ 남성교육기관 배재학당과 출신인물

■ 배재대학 최초 입학생

H.G 아펜젤러

이승만
초대대통령

주시경
한글학자

신흥우
사회운동가

▶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과 출신인물

M. 스크랜튼

류관순
순국열사

하란사
순국열사

여메례
진도사/교육자

▶ 배화학당과 출신인물

J. 캠벨

김명시
항일운동가

소은명
독립운동가

차미리사
배화교사, 근화여학교 설립

▶ 인천 내리교회와 영화학당

G. 존스부부

영화학당(최초 사립유치원/초등학교)

▶ 공주 영명학교와 출신인물

A. 샤프선교사
충청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함
유관순열사의 영적 어머니

우리암선교사
(본명 : 프랭크 윌리엄스)
영명학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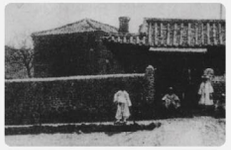
조병옥박사

류관순
순국열사

▶ 스크랜튼과 정동병원(시병원)상동교회 설립

W. 스크랜튼

맥길선교사
공주의료선교



▶ 메리 스크랜튼과 하워드의 보구녀관 (현, 이화여자대학병원)

M. 스크랜튼

M. 하워드

▶ 노블의 평양선교와 제임스, 로제타홀의 기홀병원

A. 노블

제임스 홀

로제타 홀

▶ 동대문 부인병원 (현, 이화여대병원)과 인천 부인(기독)병원 (현, 인천기독병원)

로제타 홀

보구녀관

인천기독병원

보구녀관 간호사

▶ 해주 구세병원과 크리스마스 씰 발행

셔우드홀과 부인 메리안 홀

가족사진

▶ 아펜젤러와 정동제일교회, 중앙교회

H. 아펜젤러

정동제일교회

중앙교회

▶ 미국 감리회의 인천, 강화, 남양지역 선교

G. 존스

인천 내리교회

강화 교산교회

남양지역 선교

▶ 미국 남감리교회 조선선교

C.F. 리드

광희문교회

▶ 미국 남감리회의 종교교회와 자교교회

J. 캠벨

▶ 원산선교와 회개운동

R.A. 하디

원산감리교회

▶ 평양선교 활동

A. 노블

남신현교회

기독교 조선감리회 창립총회
1930.12.2

초대 양주삼총리사

소선 감리회는 신정한 기독교회가 되어야 한다.
조선 감리회는 진정한 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선 감리회는 진정한 주선적교회가 되어야 한다.
– H. 웰치 감독

구 총리원

현 광화문 감리회관

▶ 삼문출판사의 문서선교

F. 올링거

▶ 각 교파별 찬송가 발행

감리교회 (찬미가)

장로교회 (찬양가)

통합 (찬송가)

▶ 학교 교과서 발행

G. 존스

H. 헐버트

세계지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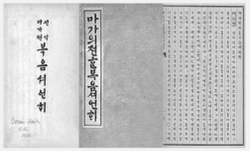
▶ 교리교재 및 성경번역위원회 성서발행

H. 아펜젤러

(발행연도: 1890년 ~)

이수정

(발행연도: 1884년)



마가복음 번역

마태복음 번역

▶ 협력으로 이룬 대한제국 건설

H. 아펜젤러

독립문 기공식

기공식에서 드린 아펜젤러 기도문

하나님께 축수하되 조선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께서 성체가 안강하시고
조선 독립이 몇 만 년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게 되며
조선 전국 인민이 정정 학문이 늘고 재산이 늘어
세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서재필

독립문

독립협회,협성회 창설

대한제국 건설

▶ 대한제국수립(1897)

고종황제

대한제국 태극기

▶ 상동청년학원(헐버트, 서재필)과 주시경(훈민정음-한글보급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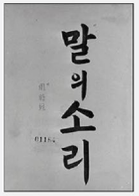
헐버트

서재필

주시경

전덕기목사

사민필지



상동교회

일본에서 첫 세례 받은 이수정의 활동

일본인의 인도로 일본에서 예수를 믿고 한글로 마태, 마가복음 번역(1884년)을 하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미국 선교잡지에 1884년 두 차례 기고하여 아펜젤러 선교사 등이 파송되도록 역할을 했다.
또 일본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르쳤으며 개신교 첫 세례(1883.4)자이며, 일본에서 기독교 친목회를 만들어 유학 온 서재필, 윤치호, 김옥균등을 전도하였다

신시유람단

일본 기독교 친목회

이수정 세례받은 후

마가복음 번역

마태복음 번역

미국에서 첫 세례 받은 서재필의 활동

일본 유학중 서재필은 처음 예수를 믿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1886년 세례를 받았다. 배재학당에서 강의를 하며 교내에서 협성회를 만들어 청년학생들을 교육, 계몽하고 인재를 양성했다. 대한제국에서 정치인, 언론인, 독립운동가로 미국에서 병리학자, 의사, 시인,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갑신정변주역

독립문 건축 초청장

독립문건축

만민공동회

중국에서 첫 세례 받은 윤치호의 활동

중국 상해 유학중에 선교사의 영향으로 감리교인이 되고 1887년 첫 세례를 받았다. 대한기독교 청년회연맹을 조직하였고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독립신문사 사장, 주필, 만민공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교장도 역임하였다.

푸트공사 통역인 윤치호

설립한 한영서원

작사한 애국가

독립신문 주필

▶ 한국인 최초목사

김기범목사

인천 내리교회

▶ 남감리교회 최초목사

김창식목사

남산현교회

▶ 남감리교회 첫 세례교인

백사겸(맹인전도사)

백사겸의 전도지

고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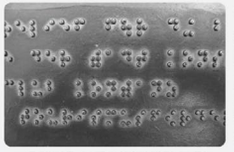
▶ 최초의 여의사(19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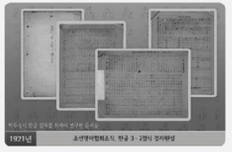
박에스더

근무지 보구녀관(현, 이화여자대학병원)

▶ 한글점자 창안자(1926년)

박두성





훈맹정음 보급(시각장애인 교육)

▶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학교 설립(1906년)과 여선교회(보호여회)최초 설립(1900년)

여메례

진명여고

보호여회 창립기도문

▶ 정부수립에 참여한 사람들

이규갑목사

이승만장로

한성정부 수립

▶ 대한국민의회(블라디보스톡 임시정부)

이동휘

대한국민의회

▶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창호

상해임시정부

▶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순

제6차 임시의정원

▶ 충칭임시정부

김구

충칭임시정부

손정도목사

임시의정원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승만 (李承晚, 1875.3.26.~1965.7.19)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 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며 예수를 믿고 정동제일교회 장로가 되었다. 한국의 정치가, 독립 운동가, 독립협회, 한성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광복 후 우리 민주진영 지도자로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선 후, 4.19 혁명으로 사임했다.

부친 경선공과 함께 찍은
서당 시절 이승만(오른쪽)

대한민국 정부수립

▶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유봉진

유봉진(강화3.1운동 정미의병)

이순, 이상설, 이위송

만국평화회의

이회영

이동녕

이시영

신흥무관학교

▶ 광복군 창설

김구

광복군

태극기

▶ 광복군 총사령관 임명장 수여

지청천

총사령장 임명장 수여

광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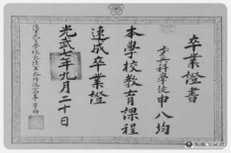
▶ 항일 애국투쟁으로 헌신한 사람들

유관순열사

이화학당 학생들(3.1독립운동)

신팔균

임수명



대한통의부 군사활동

구연영
(구국회 독립활동)

구성서

김상옥 열사

종로경찰서 폭파

장인환

전명운
(대동보국회, 스티븐스 저격)

안중근의사
(하얼빈의 투사)

우덕순의사

최인규권사
(신사참배, 창씨개명 기부 순교자)

이 준열사
(헤이그밀사)

강우규의사
(사이토총독 폭탄사건)

▶ 3.1운동 때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감리교인은 9명이었다.

이필주목사
(정동제일교회 담임)

신석구목사

신홍식목사

오화영목사

김창준전도사

박희도전도사

정춘수목사

박동완목사

최성모목사

▶ 지도자로 섬긴 사람들

김인영 신학자
신학세계편집
협성신학교교장

배덕영 교육자
성화신학교교장
주일학교 교장

배형식 선교사
북간도
시베리아선교

신흥우 사회운동가
배재학부창간
YMCA운동

양우로더 선교사
만주부흥여회창립
연화봉 여학교설립

어윤희 선생
근우회활동가

전삼덕 전도부인
평양여선교회
학동교회설립

전수진 교육자
이화교수
배화여고교장

홍에스더
YWCA 운동

이상재 선생
만민공동회주관
협성회

▶ 계몽운동에 동참한 사람들

남궁억

무궁화 보급운동

최용신

농촌계몽운동

장정심

문학활동

심훈

상록수

황애덕

송죽회 여류독립운동가

이효덕

금주 절세운동

주바성벌군 식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73번길 135-52
Tel. 02-399-4346~9 **Fax.** 02-399-4350

>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라,
>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단법인 웨슬리나눔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정기부금 모금 공익법인으로 평신도들의 기부를 받아 재난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과 국내·외 긴급복구 및 구호와 저개발국가 문맹퇴치운동 및 교육사업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01 국내외 긴급복구 및 구호 지원 사업
천재지변 및 인재로 어려움 당하는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한다.

02 국내외 자원봉사 지원 사업
도움을 필요로하는 지역에 자원봉사대를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03 취약계층 지원사업
국내외 취약계층(다문화, 새터민, 장애인, 여성, 아동, 독거노인 등)의 질병퇴치, 교육, 생계,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준다.

04 저개발국가 문맹퇴치운동 및 교육사업
기아, 빈곤,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등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05 아동 청소년의 자기 개발 인성 교육 사업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전문적인 상담가들의 강좌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이해, 내적치유, 관계회복, 미래개선을 돕는다.

06 홍보 및 회원확보
재단의 활동을 홍보하여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전문 인적자원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자원봉사 동력으로 활용한다.

웨슬리나눔재단에 함께해 주세요

1. 휴대폰의 카메라 켜고 좌측 QR 코드를 맞춘다.
2. 웹페이지 접속하기를 누른다.
3. 약관에 동의하고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등록한다.

후원계좌번호
우리 1005-104-132198
(사단법인웨슬리나눔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사회평신도국(내)

연락처
02-399-4349

홈페이지
wesley-nanum.or.kr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